

스타벅스 카드 환불 첫 날... 대란은 없었다

‘5·18탱크데이’ 논란...14일까지 전액 환불 오프라인 매장 ‘한산’·온라인 인증 잇따라

스타벅스가 선불충전금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을 시작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대규모 환불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지역 민들의 공분을 샀던 만큼 우려가 컸으나 오프라인 매장은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1일 스타벅스 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탱크 탱블러’ 제품 마케팅 행사 이후 지속된 불매운동 여파에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은 기존에는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허용했다.

스타벅스 카드 선불 충전금 규모는 약 4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앞서 스타벅스 측은 행사 명칭을 ‘탱크 데이’로 언급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5·18이 광주·전남지역을 상징하는 민주화운동인 만큼 속대 규모 환불 사태가 예상됐으나 환불 첫 날 오프라인 매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한가했다.

실제 이날 오전 광주 남구 한 스타벅스 매장. 해당 매장은 이른 아침 출근길 고객들로 매장은 붐볐지만 대다수가 평소처럼 음료와 샌드위치 등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었다.

주문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이 환불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환불을 위해 매장을 별도로 방문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이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매장을 찾은 이들은 주문한 음료를 들도 지인과 얘기를 나누거나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등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같은 날 오후 방문한 서구에 위치한 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매장은 점심 식사 후 방문한 직장인들로 붐볐지만 대부분 음료 등을 주문할 뿐 환불 신청에 대한 문의는 없었다.

일부 고객들은 매장 내 게시판에 환불과 관련된 글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맛 내. 오늘부터 환불하는 날이지” 등 지인과 환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으나 실제 환불을 진행하는 이들은 전무했다.

한 스타벅스 매장 파트너는 “실물 카드 환불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불을 위해 찾아오거나 문의를 건넨 고객들은 없었다”며 “아마 앱 등에 등록된



1일 스타벅스가 선불충전금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을 시작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대규모 환불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카드에 잔액이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 굳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환불 신청 인증이 잇따르고 있다.

환불 신청 완료 화면과 카드 잔액을 캡처한 인증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과 소요 시간 등을 공유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기간이 한 정돼 있어 충전해 둔 금액 전부 환불 신청

했다. “스타벅스 환불 끝” 등의 자신의 환불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무거운 책임감과 지속하는 마음으로 고객 불편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4일까지 약 2주간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한다.

당초 최종 충전금의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할 수 있었지만 일시 예외 조치로 카드 사용률과 관계없이 계정당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가능하며, 앱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 등으로 잔액이 지급된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에 방문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y1404@gwangnam.co.kr

제주항공, 시로 위험물 판독 자체 개발 ‘JRAG’ 도입

제주항공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항공운송 위험물을 실시간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안전운항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1일부터 AI 기반 위험물 안내 프로그램인 ‘JRAG (JEUair Regulation-based AI Guid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JRAG는 항공운송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거나 운송이 제한되는 위험물 정보를 현장 직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우선 국내 지점과 운송 현장에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OCR(광학문자인식)과 비전 AI 기술을 활용해 접수 물품의 라벨과 성분 표시, 배터리 용량 등을 자동 분석한다. 촬영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위험 품목 여부를 실시간 판독해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위탁 수하물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한다.

특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DGR)과 제주항공 내부 지침을 반영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현장 직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위험물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항공업계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위험물 관리 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항공은 AI 기술을 활용해 현장의 판단 정확도를 높이고 잠재적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총, 가전·뿌리기업 채용 숨통 틈워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안착 지원사업’ 본격 추진 면접비·근속장려금 지원...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광주지역 가전·뿌리기업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구인·구직 매칭 및 고용 안착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경총총협회(회장 양진석)는 고용노동부, 광주시와 함께 추진 중인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가전업체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우위니아 사태 이후 인력난과 채용 위축을 겪고 있는 지역 가전산업과 전후방 연관 기업의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경총은 구인·구직 매칭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광주광산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수요

데이’ 행사와 연계한 현장 채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융·복합 가전산업 및 연관 기업 취업 희망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할 경우 1인당 5만원의 면접비를 지원해 구직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취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채용 이후에는 고용 안착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지난 4월 통합공고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만근 시 50만원의 취업성공 축하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신규 인력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소통 간담회비도 신규 채용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신규 채용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는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인건비

가 지원된다. 근로자에게는 10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급되며, 직무 지도와 적응을 지원한 재직자에게도 60만원의 고용 안착 성공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광주경총은 기업과 근로자, 기존 재직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신규 인력의 조기 이탈을 줄이고 지역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전업체와 협력사들이 예산 소진 전에 적극 참여해 고용 안정과 경영 회복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지역 융·복합 가전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과 만 15세부터 59세까지의 청년·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진공 호남연수원, 가업승계 해법 찾는다

24~25일 창업주-후계자 경영승계 교육 운영

중소기업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진공)이 창업주와 후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승계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창업주와 후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승계 과정인 ‘2026 중소벤처기업이음학교’를 운영하고 참가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창업주의 경영 철학과 경험을 미래세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후계자의 혁신 역량과 비전을 접목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승계 절차 교육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공감, 기업 미래 전략 수립까지 함

께 다루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에는 세대 간 공감과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비롯해 기업승계 절차와 법률·노무 이슈,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공제 활용 방안 등 세부 전략이 포함된다.

강사진은 기업 조직문화와 세대 소통 전문가인 한지현 휴메디 대표, 기업승계 및 상속 전문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상속·증여 세무 전문가인 도혜연 SGM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직문화 컨설팅 전문가 최유진 초이스기업교육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참가 대상은 창업주와 후계자가 함께 신

청하는 기업으로 연수비는 기업당 50만원(2인 기준)이다. 패밀리기업 지정 예정 기업은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협·단체 회원기업과 CEO명품아카데미 수료기업에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창업 1세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원활한 가업승계와 경영권 이전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세대 간 경영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진경준 중진공 호남연수원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경영권 이전을 넘어 기업의 철학과 비전을 다음 세대에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이음학교가 창업주와 후계자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